

2010 YeonBunHong::Performance

L i m H y u n M i

M o d e r n

D a n c e

# Cantabile<sup>II</sup>

칸타빌레 II

2010 연분홍 정기공연-우수레퍼토리 공연

임현미의춤



# Cantabile :: 칸타빌레 이태리어로 악보에서 “노래하듯이”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 노래를 흥얼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되지 않는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노랫소리에는  
그 시절의 행복과 불안, 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던 것을 그만두게 된 것이  
몇 살 즈음인지 도대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 시간이 흐릅니다.

어린 시절, 순수와 꿈을 가지며  
희망과 애착을 더불어 가졌으며,  
성장하면서, “쉽지 않다”와 함께 책임을 짊어지며  
신념 또한 키웠습니다.  
신념은 많은 벽을 넘어서게 했으며  
두려움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소유하면서  
소중함과 상실과 집착도 알아버렸고,  
놓아두는 법도 아주 조금 배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 보따리들은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이제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서  
다시금 몸에 담습니다.  
어릴 적 무심코 진심을 노래한 것처럼  
몸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보따리들을 풀다 풀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 캄캄한 어둠이 주위를 둘러싸고  
길을 덮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불안으로 몸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둠 저편에 아득히 **조그만 빛**이 보입니다  
빛은 조용히 어둠을 걷어내며  
감아버린 눈을 뜨게 하고  
죽었던 숨을 쉬게 합니다.

그 빛은 삶의 틈새로부터 비치는  
“**사소한 의미**”들의 결정입니다  
이 “사소한 의미”들은 현실의 삶으로 말미암아 신비가 풀려버린  
꿈과 자유 그리고 “느끼다”를 담고 있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 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힘은  
어쩌면, 지금-여기 이 “사소한 의미”들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안무 임현미

### 출연

신승민 \_ 전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 M-note 상임안무  
이혜수\_ 2009 연분홍 춤 프로젝트 III 출연

with 임현미

### Visual (영상디자인)

#### 장희철

영화 <모자이크> <용용 죽겠지?> 연출  
무용 <부산 생명춤 페스티벌> <물밑소리>영상  
연극 <변신>영상

#### 구현철 (영상오퍼)

### Lighting

#### 이동진

2009 부산생명춤페스티벌 조명감독  
2001-2009 연분홍 정기공연 조명감독

## Choreographer ::

그녀의 춤에서는 전통의 향기가 묻어난다. 아마도 어릴 적 이매방 선생에게서 사사받은 흔적일 것이다. 비록 커가면서 현대춤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지만 그녀의 춤에서 묻어나오는 전통의 향기는 그녀에게 한국적 춤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대학교에 들어와 타고난 춤사위로 무용제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현대춤의 한 복판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지만 더욱 새로운 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직업무용단(트러스트 무용단)을 창단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춤추는 독립춤꾼이다. 그녀는 현재 자유로운 춤을 지향하는 춤꾼들과 함께 춤으로 만난 붉은 인연이라는 뜻의 연분 홍이라는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녀는 춤의 힘을 믿고 있다. 춤이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있고 삶의 깨달음이 춤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말을 거는 모든 것이 춤 안에서 행해지는 순간순간이며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언제까지나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 수상 경력

- 1992 동아 무용콩쿨 금상수상 "사막의 영혼"
- 1994 전국무용제 연기상 수상 "광대별곡" (정귀인 안무)
- 1996 대구무용제 연기상 수상 "아버지의 나라" (김형희 안무)
- 2002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선정
- 2009 댄스비전 안무가상 수상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주최)

LimHyunMi Modern Dance

### 주요 안무작

- 1995 "파트너" 1996 "상자 속의 아버지" "TELL" "새벽"
- 1997 "하늘새" 1998 "향수"
- 2000 "완행" 2001 "폭포" "속도와 공간" "선물"
- 2002 "길잃은날" "강" 2003 "진달래꽃" 2004 "THE HEART"
- 2005 "질푸른 셋 잊처럼..." "FLYING" 2006 "마고"
- 2007 "BURST", "BEYOND THE CLIFF" 2008 "바람을 품고", "공명"
- 2009 "부산 생명춤페스티벌"(예술감독), "물밑소리" "칸타빌레" 외 다수.
- 2010 부산시립무용단 제61회 정기공연 "허허바다-갈매기의 비상"



LimHyunMi